

전원지역 회귀도시민의 거주만족도에 관한 연구

윤준상·김준호·김성록·이종상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

A Study on Residential Satisfaction of Urban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Yoon, Jun Sang · Kim, Jun Ho · Kim, Sung Rok · Lee, Jong Sang

Dept. of Community Development, College of Industrial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Yesan, Korea

ABSTRACT

In this study, the living standard and satisfaction level of urban people who moved to rural areas researched. Through these criteria, we could analyze people's perceptions of the current rural life. We would like to present this study as a base for improvement for those who seek a better life in a rural environ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specific goals and need of our target group depend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occupation and age etc. Therefore, the support system should sensibly consider their personal needs. In addition to this, the flow of information between these people should be changed from theoretical perspective to factual perspective. The new rural tenants obtained information on rural life mostly from private channels such as their acquaintances.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providing information do not offer useful factual information on agrotechnology and financial support. Nevertheless, they are mainly focused on conceptual and ideological information.

Key words: residential satisfaction, returning to rural areas for living, urban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I. 서론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가 도시에 집중 함으로써 농업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시대에 더 나은 취업기회와 돈벌이를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농림부 통계자료(농림부 2006)에 의하면 농업 종사자는 1960년 1,424만 명에서 90년에는 666만

명, 2005년에는 343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농업종사자의 연령은 고령화되었다. 도시로 생활의 근거지를 옮겨간 사람의 대부분이 농업의 미래를 담당할 20~40대층의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미래의 영농을 짊어질 후계자가 부족한 농촌의 문제는 산업화된 한국의 산업구조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즘 농촌의 인구구조에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젊어서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 농촌마을에 돌아와 터를 잡고 사는 모습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와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한적한 농촌마을을 찾아 이주하는 중장년세대에게 농촌은 평생직장을 약속하는 새로운 일터이며, 인생을 설계하는 희망의 장이 된다(김성수 등 2004). 대도시로 이동한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보다 건강하고 질 높은 삶, 그리고 소일거리를 찾아 농촌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궁극적으로 전원지역으로 회귀한 도시민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은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이며, 거시적으로는 침체된 농촌사회의 부흥과 함께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는 요즘, 은퇴 후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박공주 등 2006).

그러나 도시 은퇴자들의 실제 농촌이주 과정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으며, 그러다보니 체계적인 준비 없이 농촌에서의 낭만적인 삶을 기대하고 갔던 무분별한 전원지역 회귀도시민들이 실패 후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회귀민의 전원지역 선택은 한 개인의 이주로 치부할 수 없는 복잡한 적응 과정이기 때문이다(정한모 2002).

또한 사회적으로 전원지역으로의 회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원지역 회귀도시민들이 빨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합리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거주만족도를 거주하는 도시(회귀한 농촌지역)의 5대 서비스기능(교육, 보건·의료, 소비·유통, 문화·여가, 교통·생활편익)의 만족도로 보고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전원지역 회귀한 도시민의 거주실태 및 행태, 생활수준, 전원지역 생활을 위한 정보획득 및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여, 귀농·귀촌을 위한 기초자

공적인 정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 한다.

II. 이론적 배경

전원지역 회귀도시민은 농업을 영위하는가,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가에 따라 귀농과 귀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적 의미의 귀농이란 “농촌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와 농사를 지음”을 의미한다. 이는 농촌을 떠났던 사람이 되 돌아온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귀농이라는 용어에는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짓지 않았던, 농촌에 살던 사람이 도시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서규선, 변재면(2000)은 귀농인의 유형을 도시와 농촌, 고향과 타향의 공간을 구분하여 고향농촌에서 거주하다가 도시로 이동한 후 다시 고향농촌으로 되돌아온 U턴 귀농자, U턴 귀농자와 달리 고향인 농촌으로 귀농하지 않고 연고가 없는 타 지역의 농촌으로 귀농한 J턴 귀농자, 처음부터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어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취업생활을 영위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한 I턴 귀농자로 분류하였다. 이들의 정의는 농촌과 도시, 다시 농촌으로 귀환을 전제하지 않은 I턴 이주자를 귀농자의 유형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귀농에 대한 정의와는 다른 견해를 보인다.

강대구(2007)는 귀농자들의 귀농동기에 따른 농업교육배경을 비교하고,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 초기 농업특성과 현재의 농업특성을 비교하며, 귀농동기에 따른 미래의 농업 계획과 농촌거주의사를 파악하여 귀농과정의 변화단계를 파악하고, 귀농동기별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박공주 등(2006)은 도시 은퇴자들의 농촌 이주가 도시와 농촌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하여, 농촌이주 후 농촌생활의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귀농인의 농촌이주 전과 농촌이주 후의 두 단계 체계로 나누어 각각 관련되는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들이 귀농자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고성준(2008)은 귀농이 어느 지역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사회의 한 흐름이 된 만큼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토지구입 및 시설자금 확보의 문제나 운영자금의 문제, 재배 및 사육기술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차원의 각별한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박영일(1998)은 귀농 전 후의 문제점을 보다 심도 있게 접근하기 위해 이미 농촌에 정착한 귀농자와 앞으로 귀농희망자에 대한 설문을 병행하였는데, 귀농희망자가 귀향 시 지참하는 영농창업자금 규모에 따라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농촌진흥청이 제공한 18개의 농업경영모델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정관(1998)은 영농정착 과정 및 유형을 분석하여 귀농자가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농토, 가축구입 등의 농업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자금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김정섭(2009)는 귀농, 귀촌을 촉진하는 정책은 그 실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내 NGO의 세심한 준비와 역량이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지자체와 지역내 NGO가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당연히 전제되어야한다고 제언하였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과거 도시에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전원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자 350가구(전국에 거주하는 농촌문화마을 및 실버타운 등에 거주하는 집단거주자, 귀농운동본부에서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로 현재 전원지역으로 회귀한자, 전원회귀자)를 대상으로 2008년 11월 3일부터 2008년 11월 17일까지 15일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인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귀농이주민의 경우 거주지역의 산별성과 조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대인면접조사와 E-mail 및 우편조사를 병행하였다. 총 조사대상 350가구 중 무응답 및 결측값이 많이 나타난 설문지를 제외한

317가구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본의 추출방법은 조사대상 집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전원단지 거주자의 경우 무작위 표본추출을 실시하였고 귀농이주민의 경우에는 귀농운동본부에서 제공한 귀농자 명부를 이용하여 무작위 표본추출을 실시하였다. 전원회귀자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추천된 응답자들을 조사하였다.

측정도구 구성을 위해 선행연구(박공주·윤순덕·강경하, 2006)를 기초로 이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인으로는 거주지역, 나이, 성별, 이주년도, 은퇴시기, 은퇴준비시간, 거주형태, 이전직업, 현거주지 이주동기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거주만족도를 파악하기위하여 해당 거주도시의 5대 서비스기능(교육, 보건·의료, 소비·유통, 문화·여가, 교통·생활편익)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for windows을 이용하였으며, 전원지역 회귀도시민의 실태에 관한 문항에 대해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만족도에 관한 문항간 영역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의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58.4%, 여성 41.6%로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30대 이하 31.9%, 40대 29%로 나타났고 50대와 60대 이상의 비율은 각각 19.9%, 19.2%로 조사되었다.

직업에 대한 설문문항에서는 농·임·어업의 비율이 41.3%로 나타났고 이외의 직업에 대한 비율이 58.7%로 나타나고 있다.

전원지역 회귀도시민들의 가구소득에 대한 문항에서는 99만원 이하 34.4%, 100만원~199만원 이하 25.2%, 200만원~299만원 이하 21.1%, 300만

원 이상 19.2%로 나타났다.

2007년 일반농가의 연평균소득(통계청 2008)은 31,967,000원이며 전원지역 회귀도시민들의 가구 소득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전원지역 회귀도시민의 실태에 대한 문항간 교차비교분석결과

1) 귀농유형에 대한 교차비교분석결과

전원지역 회귀도시민의 실태에 관한 문항과 귀농유형에 따른 교차비교분석결과 이주 당시 가구연령, 현 거주지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로, 앞으로 새롭게 구상하는 일, 이주에 필요한 지원 사항, 읍·면 소재지까지의 자동차 소요시간, 정착투자 금액, 농어촌에 사는 것이 자녀교육에 더 좋은가에 관한 분석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이주 당시 가구연령은 전원단지거주자와 귀농이주민 모두 30대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지만, 전원단지거주자는 40대 이후에서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 귀농이주자의 경우에는 40대 이전의 비율이 높아 귀농이주민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더 젊은 시기에 귀농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거주지 이주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전원단지거주자와 귀농이주민 모두 주변사람에게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전원단지거주자의 경우 방송매체, 고향 친구나 친척들에게 얻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귀농이주자의 경우 인터넷이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새롭게 구상하는 일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새로운 일을 생각하지 않거나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단지거주자의 경우에는 농업이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적은 의견이 나타난 반면 귀농이주자의 경우에는 농업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전원단지거주자의 경우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로 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자리 앞선, 장소·절차의 정보제공을 필요로 하였다. 반

면 귀농이주자의 경우에는 정착자금의 지원·읍자를 가장 필요로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적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필요로 하였다.

읍·면 소재지까지 자동차로 이동시간은 두 집단 모두 10분~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전원단지거주자의 경우에는 읍·면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10분 미만의 가까운 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귀농이주자의 경우에는 읍·면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10분이상의 비교적 먼 곳에 거주하고 있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투자한 금액은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전원단지거주자의 경우에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 투자한 금액이 1억 이상 투자를 한 사람들이 전체의 65.4%를 차지한 반면 귀농이주자의 경우에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 투자한 금액이 1억 이하인 사람들이 전체의 73.8%로 나타났다.

“농·어촌에 사는 것이 자녀 교육에 더 좋다”는 문항에서는 전원단지거주자의 경우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대체로 공감, 전혀 공감하지 않음 순으로 의견이 나타났다. 반면 귀농이주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매우 공감, 별로 공감하지 않음 순으로 의견이 나타나서 자녀교육에 대한 두 집단간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2) 연령의 차이에 대한 교차비교분석결과

전원지역 회귀도시민의 실태에 관한 문항과 연령의 차이에 따른 교차비교분석결과 앞으로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일에 대한 문항과 농촌에 사는 것이 자녀교육에 더 좋은가에 관한 분석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앞으로 새롭게 구상하는 일에 대한 문항에서는 4개의 집단 모두 새로운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농사나 사업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는 반면 젊은 층일수록 새로운 일에 대한 의견이나 농업,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1. Cross tabulations by the type of respondent

Question	Type of respondent		Sum	χ^2 (p)
	A garden suburb	Returning people		
<u>Age of householder when migrating</u>				
20s	4(2.6)	16(9.8)	20(6.3)	43.598 (.000)
30s	43(28.1)	82(50.0)	125(39.4)	
40s	35(22.9)	38(23.2)	73(23.0)	
50s	33(21.6)	21(12.8)	54(17.0)	
60s	28(18.3)	4(2.4)	32(10.1)	
older than 70s	10(6.5)	3(1.8)	13(4.1)	
Sum	153(100.0)	164(100.0)	317(100.0)	
<u>How to get information about current residence</u>				
Acquaintance	57(37.3)	55(33.5)	112(35.3)	24.003 (.001)
etc.	19(12.4)	27(16.5)	46(14.5)	
Hometown	19(12.4)	18(11.0)	37(11.7)	
Family, relatives and friends in rural area	22(14.4)	13(7.9)	35(11.0)	
Newspaper, TV, magazine and books	23(15.0)	10(6.1)	33(10.4)	
Internet	9(5.9)	21(12.8)	30(9.5)	
Organization concerned	4(2.6)	20(12.2)	24(7.6)	
Sum	153(100.0)	164(100.0)	317(100.0)	
<u>Plan for the future</u>				
No new plan	102(66.7)	52(31.7)	154(48.6)	50.925 (.000)
Some idea but no concrete plan	36(23.5)	48(29.3)	84(26.5)	
Regular farming	4(2.6)	37(22.5)	41(12.9)	
Enterprise other than farming	11(7.2)	27(16.5)	38(12.0)	
Sum	153(100.0)	164(100.0)	317(100.0)	
<u>Support for migration</u>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 in rural area	83(56.8)	32(20.4)	115(38.0)	46.261 (.000)
Employment assistance	22(15.1)	29(18.5)	51(16.8)	
Financial support for settlement	12(8.2)	37(23.6)	49(16.2)	
Education and training for adaptation	10(6.8)	31(19.7)	41(13.5)	
Information about place and procedure	13(8.9)	21(13.4)	34(11.2)	
Simplification and deregul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6(4.1)	7(4.5)	13(4.3)	
Sum	146(100.0)	157(100.0)	303(100.0)	
<u>How long it takes to eup · myun by car</u>				
Less than 5 minutes	54(37.5)	23(14.1)	77(25.1)	51.943 (.000)
5 ~ 10 minutes	35(24.3)	19(11.7)	54(17.6)	
10 ~ 20 minutes	40(27.8)	64(39.3)	104(33.9)	
More than 20 minutes	15(10.4)	57(35.0)	72(23.5)	
Sum	144(100.0)	163(100.0)	307(100.0)	
<u>Amount of money invested for settlement</u>				
Less than 50 million Won	26(17.0)	90(54.9)	116(36.6)	59.858 (.000)
50 ~ 99 million Won	27(17.6)	31(18.9)	58(18.3)	
100~ 190 million Won	61(39.9)	24(14.6)	85(26.8)	
More than 200 million Won	39(25.5)	19(11.6)	58(18.3)	
Sum	153(100.0)	164(100.0)	317(100.0)	
<u>Living in rural area is advantageous to education of children</u>				
Strongly agree	8(6.1)	40(25.5)	48(16.7)	29.594 (.000)
Agree	38(29.0)	60(38.2)	98(34.0)	
Disagree	50(38.2)	31(19.7)	81(28.1)	
Strongly disagree	35(26.7)	26(16.6)	61(21.2)	
Sum	131(100.0)	157(100.0)	288(100.0)	

Table 2. Cross tabulations by the age of respondent

Question	Age				Sum	χ^2 (p)
	20s~30s	40s	50s	Older than 70s		
Plan for the future						
No new plan	39(38.6)	33(35.9)	30(47.6)	52(85.2)	154(48.6)	55.331 (.000)
Some idea but no concrete plan	24(23.8)	33(35.9)	19(30.2)	8(13.1)	84(26.5)	
Regular farming	24(23.8)	10(10.9)	7(11.1)	0(0)	41(12.9)	
Enterprise other than farming	14(13.9)	16(17.4)	7(11.1)	1(1.6)	38(12.0)	
Sum	101(100.0)	92(100.0)	63(100.0)	61(100.0)	317(100.0)	
Living in rural area is advantageous to education of children						
Strongly agree	23(23.2)	22(25.0)	2(3.9)	1(2.0)	48(16.7)	53.334 (.000)
Agree	40(40.4)	35(39.8)	17(33.3)	6(12.0)	98(34.0)	
Disagree	21(21.2)	22(25.0)	17(33.3)	21(42.0)	81(28.1)	
Strongly disagree	15(15.2)	9(10.2)	15(29.4)	22(44.0)	61(21.2)	
Sum	99(100.0)	88(100.0)	51(100.0)	50(100.0)	288(100.0)	

농촌에 사는 것이 자녀교육에 더 좋은가에 관한 문항에서는 연령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20~30대에서는 매우 공감,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농촌에 거주하는 것이 자녀교육에 긍정적인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40대에서도 20~30대와 비슷한 비율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반면 50대에서는 대체로 공감,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고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 또한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60대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전체의 86%를 차지하였고 이것은 고령의 응답자들이 농촌에 거주하는 것이 자녀 교육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현재직업의 차이에 대한 교차비교분석결과 전원지역 회귀도시민의 실태에 관한 문항과 직업의 차이에 따른 교차비교분석결과 앞으로 새롭게 구상하는 일, 이주에 필요한 지원 사항, 읍면 소재지까지의 자동차 소요시간, 인근 중소도시까지의 자동차 소요시간에 관한 분석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앞으로 새롭게 구상하는 일에 관한 문항에서는 두 집단 모두 새로운 일을 하지 않음, 구체적 계획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사업이나 농사

에 대한 답변 역시 두 집단 모두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1차 산업 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사업이나 농사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주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관한 문항에서는 두 집단 모두 농어촌 생활 여건 개선에 대해 가장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산업 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지원에 전체 응답자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응답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거리 알선, 정착자금 지원·용자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일거리 알선, 정착자금 지원·용자, 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해 비슷한 응답비율을 차지하여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현재 자신의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소재지·인근중소도시까지의 자동차 소요시간에 대한 문항에서는 두 집단 모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차 산업 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읍면 소재지·인근중소도시

Table 3. Cross tabulations by the occupation of respondent

Question	Current occupation		Sum	χ^2 (p)
	Primary Industries	Except primary industries		
Plan for the future				
No new plan	70(39.5)	84(60.0)	154(48.6)	14.789 (.002)
Some idea but no concrete plan	51(28.8)	33(23.6)	84(26.5)	
Regular farming	29(16.4)	12(8.6)	41(12.9)	
Enterprise other than farming	27(15.3)	11(7.9)	38(12.0)	
Sum	177(100.0)	140(100.0)	317(100.0)	
Support for migration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 in rural area	38(22.5)	77(57.5)	115(38.0)	43.637 (.000)
Employment assistance	33(19.5)	18(13.4)	51(16.8)	
Financial support for settlement	34(20.1)	15(11.2)	49(16.2)	
Education and training for adaptation	34(20.1)	7(5.2)	41(13.5)	
Information about place and procedure	23(13.6)	11(8.2)	34(11.2)	
Simplification and deregul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7(4.1)	6(4.5)	13(4.3)	
Sum	169(100.0)	134(100.0)	303(100.0)	
How long it takes to eup&myun by car				
Less than 5 minutes	36(20.6)	41(31.1)	77(25.1)	12.169 (.000)
5 ~ 10 minutes	24(13.7)	30(22.7)	54(17.6)	
10 ~ 20 minutes	70(40.0)	34(25.8)	104(33.9)	
More than 20 minutes	45(25.7)	27(20.5)	72(23.5)	
Sum	175(100.0)	132(100.0)	307(100.0)	
How long it takes to nearby middle-sized or small town by car				
Less than 15 minutes	15(9.3)	39(32.0)	54(19.0)	45.190 (.000)
16~30 minutes	35(21.6)	46(37.7)	81(28.5)	
30 minutes ~1 hour	89(54.9)	29(23.8)	118(41.5)	
More than 1 hour	23(14.2)	8(6.6)	31(10.9)	
Sum	162(100.0)	122(100.0)	284(100.0)	

까지의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여 비교적 지가가 저렴한 중심지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가구소득의 차이에 대한 교차비교분석결과 전원지역 회귀도시민의 실태에 관한 문항과 가구소득의 차이에 따른 교차비교분석결과 인근 중소도시까지의 자동차 소요시간, 전원마을 이주

준비시기에 관한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인근 중소도시까지의 자동차 소요시간에 대한 문항에서는 30분~1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16분~30분이 소요되는 지역에 많은 응답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는 응답자들이 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응답자들에 비해 인근 중소도시에서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마을 이주 준비시기에 관한 문항에서는

Table 4. Cross tabulations by the family income of respondent

Question	Family income				Sum	χ^2 (p)
	Less than 990 (1,000)Won	1,000~1,990 (1,000)Won	2,000~2,990 (1,000)Won	More than 3,000 (1,000)Won		
How long it takes to nearby middle-sized or small town by car						
Less than 15 minutes	11(11.0)	11(15.5)	8(14.5)	24(42.9)	54(19.1)	42.801 (.000)
16~30 minutes	21(21.0)	26(36.6)	19(34.5)	14(25.0)	80(28.4)	
30 minutes ~ 1hour	60(60.0)	24(33.8)	19(34.5)	14(25.0)	117(41.5)	
More than 1 hour	8(8.0)	10(14.1)	9(16.4)	4(7.1)	31(11.0)	
Sum	100(100.0)	71(100.0)	55(100.0)	56(100.0)	282(100.0)	
Time of preparation for migration to garden village						
Before retirement	51(47.7)	44(55.0)	40(59.7)	48(78.7)	183(58.1)	23.602 (.001)
While preparing for retirement	7(6.5)	7(8.8)	7(10.4)	7(11.5)	28(8.9)	
After retirement	49(45.8)	29(36.3)	20(29.9)	6(9.8)	104(33.0)	
Sum	107(100.0)	80(100.0)	67(100.0)	61(100.0)	315(100.0)	

은퇴 전에 전원마을로의 이주를 준비하고 계획했던 응답자들이 은퇴 후 전원마을로의 이주를 준비한 응답자들보다 고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원마을로의 이주나 귀농에 대해서 은퇴 전부터 정보를 탐색하고 준비할수록 귀농계획을 실행하였을 때 보다 더 고소득을 가지

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전원지역 회귀도시민의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설문문항의 구성타당도 검정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었다. 본 논문

Table 5. Cause analysis regarding satisfaction

Questions of survey	Factor			Communalities
	F1 (Satisfaction with facilities of nearby towns)	F2 (Satisfaction with facilities of residing town)	F3 (Satisfaction with living condition of residing town)	
Shopping facilities of nearby towns	.807	.029	.075	.658
Culture & leisure facilities of nearby towns	.804	.006	-.033	.647
Transportation and convenient facilities of nearby towns	.774	-.091	.053	.611
Medical facilities of nearby towns	.747	-.027	-.025	.559
Education facilities of nearby towns	.682	.123	.012	.481
Shopping facilities	.065	.839	-.070	.714
Culture & leisure facilities	.066	.816	-.077	.677
Medical facilities	-.019	.813	-.038	.663
Transportation and convenience of living	-.064	.797	-.025	.639
Comfortable living condition	-.026	-.063	.828	.691
Location	.083	-.126	.783	.636
House	.004	.009	.693	.481
Eigenvalues	2.940	2.712	1.803	
Pct of Var	0.24503	0.22599	0.15025	

에서는 만족도에 관한 여러변수들간의 관계성이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eigenvalue와 communality를 비교하여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각 문항의 communality는 0.4 이상으로 나타났다. 12개의 변수를 투입하여 전원지역 도시회귀민의 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3개의 주요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1은 ‘인근도시 시설만족도’, 요인2는 ‘거주도시 시설만족도’, 요인 3은 ‘거주도시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문항에 대해서 3개 요인은 62.127%를 설명하고 있다.

4. 요인점수를 이용한 일원변량분석

1) 연령의 차이에 따른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결과

전원지역 도시회귀민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요인분석결과 도출된 3개의 요인점수를 변수로 저장하여 독립변수를 연령으로 하고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거주도시의 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사후검증을 하였으며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의 결과 거주도시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30대이하 응답자들과 40대 응답자와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에게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Table 6. One-way ANOVA by age and Multiple Comparisons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of F
Satisfaction with facilities of nearby towns	between groups	2.832	3	.944	.943	.420
	within groups	313.168	313	1.001		
	total	316.000	316			
Satisfaction with facilities of residing town	between groups	3.355	3	1.118	1.120	.341
	within groups	312.645	313	.999		
	total	316.000	316			
Satisfaction with living condition of residing town	between groups	12.138	3	4.046	4.168	.006
	within groups	303.862	313	.971		
	total	316.000	316			
Satisfaction with living condition of residing town	Mean		Younger than 30s	40s	50s	Older than 60s
	Younger than 30s	.272	☆	.038*	.337	.028*
	40s	-.143		☆	.900	.979
	50s	-.020			☆	.753
	Older than 60s	-.214				☆

*p<.05, **p<.01

2) 정착 투자비용의 차이에 따른 일원변량 분석과 사후검증결과

정착투자비용의 차이에 따라 거주도시 생활만족도에 대해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검증결과 거주도시 생활만족도에 대해 5천만원 미만의 정착비용을 투자한 집단과 2억 이상의 정착비용을 투자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3) 음면소재지 거리의 차이에 따른 일원변량 분산분석과 사후검증결과

음면소재지까지 자동차로 이동거리의 차이에 따라 인근 중소도시 시설만족도, 거주도시 시설

만족도, 거주도시 생활만족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검증 결과 인근 중소도시 시설만족도에 대해 20분 이상의 거리에 거주하는 거주자들과 20분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는 응답자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거주도시 시설만족도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20분 이상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들과 5분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는 응답자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거주도시의 시설만족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5~10분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는 응답자들과 10분~20분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는 응답자들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able 7. One-way ANOVA by family income and Multiple Comparisons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of F
Satisfaction with facilities of nearby towns	between groups	5.361	3	1.787	1.801	.147
	within groups	310.639	313	.992		
	total	316.000	316			
Satisfaction with facilities of residing town	between groups	3.031	3	1.010	1.010	.388
	within groups	312.969	313	1.000		
	total	316.000	316			
Satisfaction with living condition of residing town	between groups	17.944	3	5.981	6.281	.000
	within groups	298.056	313	.952		
	total	316.000	316			
Satisfaction with living condition of residing town	Mean	Less than 50million Won	50~99 million Won	100~199 million won	More than 200million won	
Less than 50million Won	.237	☆	.339	.460	.000	
50~99 million Won	-.051		☆	.985	.205	
100~199 million won	.012			☆	.061	
More than 200million won	-.441				☆	

*p<.05, **p<.01

Table 8. One-way ANOVA by distance to eup · myun and Multiple Comparisons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of F
Satisfaction with facilities of nearby towns	between groups	16.779	3	5.593	5.815	.001
	within groups	291.419	303	.962		
	total	308.197	306			
Satisfaction with facilities of residing town	between groups	14.034	3	4.678	4.785	.003
	within groups	296.209	303	.978		
	total	310.243	306			
Satisfaction with living condition of residing town	between groups	14.316	3	4.772	4.850	.003
	within groups	298.141	303	.984		
	total	312.456	306			
Satisfaction with facilities of nearby towns	Mean	Less than 5 minutes	5~10 minutes	10~20 minutes	More than 20 minutes	
Less than 5 minutes	-.156	☆	.997	.836	.005	
5~10 minutes	-.196		☆	.766	.007	
10~20 minutes	-.020			☆	.035	
More than 20 minutes	.423				☆	
Satisfaction with facilities of residing town	Mean	Less than 5 minutes	5~10 minutes	10~20 minutes	More than 20 minutes	
Less than 5 minutes	.126	☆	.992	.993	.029	
5~10 minutes	.072		☆	.950	.113	
10~20 minutes	.171			☆	.007	
More than 20 minutes	-.365				☆	
Satisfaction with living condition of residing town	Mean	Less than 5 minutes	5~10 minutes	10~20 minutes	More than 20 minutes	
Less than 5 minutes	-.059	☆	.584	.180	.971	
5~10 minutes	-.305		☆	.008	.833	
10~20 minutes	.272			☆	.066	
More than 20 minutes	-.139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거주만족도를 거주하는 도시의 5대 서비스기능(교육, 보건·의료, 소비·유통, 문화·여가, 교통·생활편익)의 만족도로 보고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전원지역 회귀한 도시민의 거주실태 및 행태, 생활수준, 전원지역 생활을 위

한 정보획득 및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여, 귀농·귀촌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정책과 전원지역 회귀도시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려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원지역 회귀도시민들은 귀농유형, 연령, 직업, 가구소득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났

다. 귀농유형의 경우 전원단지거주자와 귀농이주민 집단 간에 언제 이주하였는지, 어디서 필요를 얻는지, 앞으로 새롭게 구상하는 일은 무엇인지, 이주에 필요한 지원 사항은 무엇인지에 관한 문항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에는 앞으로 새롭게 구상하는 일은 무엇인지, 농촌 거주가 자녀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문항에서 연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직업과 가구소득에 관한 분석에서도 여러 문항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전원지역 회귀도시민들의 만족도에 관한 문항을 요인분석 후 요인점수와 연령, 소득, 이동 거리에 관한 응답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거주도시 생활만족도에 대해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30대 이하, 40대, 60대 이상 거주자들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정착비용에 따른 거주도시 생활만족도에 대해 차이가 있었는데, 5천만원 미만의 응답자들과 2억원 이상의 응답자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동거리의 차이에 따라 인근도시·거주도시의 시설만족도, 거주도시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요약에 따라 본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원지역 회귀도시민들은 그들의 직업과 연령 등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목적과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귀농 지원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전원단지거주자의 경우 생활여건의 개선을 필요로 하지만 귀농이주민의 경우에는 정착자금의 지원·용자를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귀농·귀촌과 관련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추진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그들의 요구에 기초한 정책적 안내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귀농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이론적 내용 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변화해야 한다. 설문조사의 결과, 현 거주지 이주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대부분 주변 사람이었고, 정보획득의 경로에 있어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귀농에 대한 이념적 지향을 교육하는데 치중하고 있고, 농업

기술에 대한 부분이나 실제로 귀농하였을 때 필요한 자금이나 주택의 확보, 지역 적응 부분에 대한 안내가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보제공방법의 다양화와 홍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원지역으로 회귀하는 도시민들의 성공적인 전원생활을 위해 연구가 이루어 졌지만 농촌생활의 적응이라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후속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원지역으로의 이동이 단독이동이 아닌 가족단위의 이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면담과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귀농이주자의 경우 농업의 분류를 좀 더 세밀화 하여 작물별 수익성에 대해 분석을 제시하고, 필요한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후에 귀농을 결심하는 이주자들에게 좋은 정보의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장대구(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 한국 농업교육학회지 39(1), 59-198.
- 고성준(2008) 귀농자의 실태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구.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수·정지용·임행백·고운미·김정태(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1), 53-65.
- 김정섭(2009) 귀농, 귀촌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6(3), 552.
- 농림부(2006)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2005년 농림부 정책과제 보고서. 농림부.
- 박광주·윤순덕·강경하(2006) 은퇴 후 귀농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학회지 12(4), 63-76.
- 박영일(1998)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규선·변재면(2000) U턴귀농자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1), 137-153.
- 이정관(1998) 귀농자의 영농정도와 관련된 특성분석.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한모(2002) 귀농인의 농촌생활과 영농정착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2008) 농가경제통계 2007, 42.